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지론」과 「고백록」을 통해서본 신앙교육

정 현 숙

수원대학교

〈요 약〉

현대인을 위한 신앙교육의 지침을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지론」과 「고백록」의 고찰을 통해서 얻고자 하였다. 「자유지론」에서 제시한 악의 원천은 창조자인 하느님이나 피조물인 인간, 사물,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지지의 오용에 있다는 것은 죄악의 윤리 도덕적 책임이 인간의 의지임을 논구한 것이다. 현대인의 경우에도 죄악의 주체가 인간 자신이며, 외부의 물질문명이나 환경 또는 사회가 아님을 시사하는 의의가 있다. 「고백록」에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회심’이 ‘신적조명’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 것은 현대인의 교육에서 지식중심의 교수-학습으로는 인격의 성장이나 심리적 불안과 악의 유혹으로부터 해방을 기대할 수 없고, 정서와 의지를 중심으로 믿음이 선행 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몰가치적 무목적적 지식교육으로는 인간의 선행과 행복을 기대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고대의 아우구스티누스가 논구하고 체험한 것 즉 영원불변한 행복과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일시적이고 늘 변하는 사물을 향하지 말고 영원불변한 진리인 하느님을 향하도록 자유지지를 선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앙을 해야 한다는 「자유지론」과 「고백록」의 주제는 현대인의 신앙교육에서 핵심적 지침이 될 수 있다.

핵심주제어 : 자유지론, 고백록, 악, 회심, 신적조명, 신앙교육.

I. 서 론

현대사회는 격변의 시기이며 생존경쟁이 치열한 자본주의적 산업 경제 사회이다. 이러한 변화와 경쟁의 추동력은 과학과 기술에서 나오고 있으며, 과학기술은 두 가지 측면에서 현 시대를 특징짓고 있다. 첫째는 물질과 정신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세계관과 생명까지도 물질 현상으로 보는 유물론적 생명관이다. 둘째는 기술개발로 이루어진 물질문명의 결과 초래된 핵무기의 위험, 환경의 파괴, 공해와 오염 등 전 인류적 생존 위협이다.

이 두 가지는 안팎으로 인간의 소외 현상과 불안 심리의 확산을 불러 일으켜 사람들의 마음에서 평안과 행복감을 빼앗아가고, 격렬한 경쟁 속에 살아남으려는 몸부림만 있는 사회로 몰아가고 있다. 삶의 궁극적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지 않고, 단순히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현대인의 삶은 물질적 풍요속의 정신적 빈곤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현대인은 구원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외적 요인들인 물질문명의 개선은 아닐 것이다. 그 보다는 내적 요인인 이원론적 세계관과 유물론적 생명관에서 그 뿌리를 보고, 이를 치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세 이전에 역사적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과 인류의 구원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아우구스티누스를 연구할 가치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살던 시대에도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대변혁기였으며 가치관의 혼란이 극심한 시대였다. 그가 젊은 시절에 빠졌던 ‘마니교’는 선악 이원론을 가르쳤고, 유물론적 인간관을 제시했었다. 비록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이원론과 유물론이란 점에서 현대사회와 유사한 상황이었다. 그는 현대인과 유사하게 삶의 궁극적 목적을 모르고, 현실적 삶의 악에 빠져 고뇌하다가 ‘회심’이란 사건을 전환점으로 하여 하느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고 마음에 평화를 얻게 되었다. 그는 「고백록」에서 “하느님 당신 안에서 쉼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¹⁾고 했듯이 하느님 신앙을 통해서 인간적 고뇌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다.

현대인의 불안과 인간적 소외도 궁극적 해결은 아우구스티누스적 모델을 따른 신앙교육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지식 중심의 편중된 교육에서 지식과 믿음의 균형을 갖춘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으로는 이성과 의지가 조화된 교육이 되겠다. 모든 죄악의 근원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오용에서 나옴을 밝힌 「자유 의지론」을 고찰하고 참조하는 이유이다. 둘째로는 인간 자유의지 자체로는 너무 나약하여 악으로부터 벗어나 줄 수 없으므로 필히 하느님의 은총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고백록」을 고찰함으로써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 의지론」과 「고백록」을 차례로 고찰한 후 아우구스티누스의 선악의

1) A. Augustinus, Confessionum, I, 1, 최민순 옮김, 『고백록』, 성바오로출판사, 1993, 23쪽.

고뇌, 회심, 영원한 평화에로의 구원이라는 예시를 현대인의 상황에 적용하고, 신앙교육의 전형이 되는 지침을 얻고자 하였다.

II. 자유의지와 죄악

「자유지론」은 7년(388-395)에 걸쳐 집필 되었으며 에보디우스(Evodius)²⁾와의 대화 형식으로 꾸며진 일종의 대화편(對話篇)이다. 이 책의 저술 취지는 “악이 어디서 유래하는가(unde sit malum)?”라는 질문에 답하는 즉, 악의 기원을 논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으로는 ‘마니교’의 잘못된 주장을 배격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악의 본성은 불변이며, 하느님과 더불어 영원한 것으로 만물의 창조주인 하느님이 악의 궁극적 기원이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실체가 없으며, 하느님은 선의 원천일 뿐 악의 원천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이 ‘자유지’를 오용하는 것이 악의 기원이다”고 논변 하는 것이 이 책의 집필 의도이다.

「자유지론」은 3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권 ‘인간과 자유지’는 ‘하느님이 악의 장본인 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인간의 자유지가 악의 원천임을 논한다. 제2권 ‘하느님과 인간의 자유지’에서는 하느님의 존재 증명과 하느님은 선하시며 모든 존재하는 것 특히 의지는 선함을 주장한다. 제3권 ‘자유지는 인간의 선으로서 하느님께로부터 유래했다’에서 하느님의 예지와 자유지가 모순되지 않음을 논증한다.

1. 악의 원천으로서 자유지

제1권은 “악의 본질은 무엇인가(quid sit malum)?”라는 질문 즉, 악의 정의로부터 논의가 시작된다. 먼저 ‘욕정’이 악행의 뿌리임을 살피고, 다음에 모든 욕정 중에서 ‘질책 받을만한 욕망’이 악의 원인이라고 본다. 그리고, 악행의 정의를 ‘악은 이성이 욕정에 굴종하는 것’이라고 본다.³⁾

인간의 위대함은 그의 이성에 있고, 정욕이 이성에 지배받아야 한다고 본다. 이에 관한

2) 에보디우스(Evodius)는 아우구스티누스와 고향이 같은 청년으로 밀라노 왕실에 들어가 관직을 맡고,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사사하는 벗들의 모임에 가담했으며 공동생활 및 수도생활에 참여했고 아우구스티누스보다 조금먼저 입교했다. 밀라노, 오스티아, 로마, 카르타고르 등에 동행했고, 아프리카로 돌아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주교가 된 이듬해(396/ 397)우잘리(Uzali)의 주교가 된다. ‘자유지론’에서 스승에 대한 제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설정되어 있다. 자유지론 인용문에 ‘에’는 에보디우스를, ‘아’는 아우구스티누스를 뜻한다.

3) 악의 정의는 ‘최고선’(summum bonum)의 정의와 대조된다.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빼앗기지 않을 선, 불변하고 영원한 선,”(자유지론 I. 12. 26)

논의의 문답을 에보디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대화에서 인용해보겠다.

아: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이성으로 파악 했다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아님을 그대는 모르지 않으리라.

에: 그렇습니다.

아: 따라서 자기가 살아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이성을 결하고 있지 않다.

에: 당연한 결론입니다

아: 짐승들도 살아 있기는 하지만, 이미 밝혀진 것처럼, 이성을 결하고 있다

에: 그것도 분명합니다.⁴⁾

인간이 짐승들보다 월등한 것은 이성이 있기 때문이며 , 따라서 인간의 이성이 인간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을 다스릴 수 있을 때 그 인간은 이상적임을 논한다⁵⁾. 다음에 이러한 이상적 상황에 있는 사람(현자)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논의가 아래와 같이 이어진다.

아: 인간이 만일 그렇게 갖춰지고 질서 잡혀 있다면, 그대한테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현자로 보이지 않는가?

에: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현명한 사람으로 보일 누가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지만 참으로 허다한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그대도 알리라 믿는다.

에: 그것도 어지간히 분명한 일입니다.

아: 만일 어리석은 자는 현자와 반대되는 사람이고, 현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대는 어리석은 자가 무엇인지도 이미 확연하게 깨닫고 있다.

에: (어리석은 자란) 지성이 (그 인간 안에서) 최고의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임을 누가 모르겠습니까?⁶⁾

이 대화에 이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지성 자체가 결여된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지성이 자신의 전체를 통솔 하는 권한을 상실했을 뿐임을 상론한다. 그런데, 인간보다 하위이든, 동등하든, 또는 상위 이든 간에 그 어느 것도 지성의 통솔력을 빼앗아 이성이 정욕에 굴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의하여서만 이성이 정욕에 굴하는 것이다. 이성이 정욕에 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악이며 따라서 악의 근원은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논증 한다⁷⁾.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바라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은 ‘선택의지’를 구사하지

4) A.Augustinus, De libero arbitrio, I,VII,16.성염 역주, 『자유의지론』, 분도출판사, 1988,105쪽

5) Ibid., I.VIII.18. 107, 109 쪽.

6) Ibid., I,IX, 19. p.111

7)김성진, 「현대의 윤리적 상황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론」, 『중세철학』, 제8호 한국 중세철학 연구소 편, 분도출판사, 2002, 200쪽

못하기 때문이다. 이성이 정욕에 굴하여 즉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악을 행하게 되며 행복을 얻지 못 하게 된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논리이다. 영원한 진리를 사랑하는 대신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사물들을 사랑함으로써 죄악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잘못 사랑하는 사물을 탓 할 수 없고, 악용하는 사람을 탓해야 한다.

2. 하느님은 모든 선의 원천

제2권 첫머리는 “하느님이 왜 인간들에게 의지의 자유선택을 부여하셨는지, 가능 하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을 받지 않았더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⁸⁾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하느님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한다. ① 존재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인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현상학적 고찰을 통해서 인식을 갖춘자는 존재하여 살아 있음을 논하고, ② 외적 감각에서 내적감관으로, 다시 이성으로 발전하는 인식론적 고찰을 통해서 이성이 내외감관보다 상위임을 논한 다음, ③ 인간의 가변적인 이성보다 우월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이성 즉 진리가 곧 하느님이라고 논한다.

하느님의 존재 증명에 이어서, 모든 선은 하느님으로부터 유래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의지도 또한 선하다고 결론짓는다.

자유의지를 두고도, 그것 없이는 아무도 올바르게 살지 못할 터이므로, 자유의지는 선한 것이요 하느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 그것을 주신 분이 그것을 주시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좋은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질책해야 할 것이다.⁹⁾

이 세상의 사물은 하느님의 피조물인데, 하느님은 선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모든 피조물도 선하다는 논리를 전개한 후 따라서 자유의지도 선하며, 자유의지의 대상물도 선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의지 자체나 의지의 대상물은 악한 것이 아닌데, 의지의 잘못된 배향(*aversio*) 즉 자유의지의 오용에서 악이 발생한다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다. 이 자유의지의 오용의 원인은 제1권에서 논한 바와 같다.

3. 자유의지와 하느님의 예지

제3권에서는 하느님은 전지전능함으로 만사를 예지하시며, 그리고 하느님이 예지하시는 바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자유의지가 성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의 예지가 오히려 인간의 자유의지를 확보한다고 주장한다.

8) De libero Arbitrio, II.1.1.

9) Ibid., XVIII. 48, 255쪽

하느님이 예지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원하거나 원치 않는 우리 능력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류가 없는 예지를 가지신 그 분이 장차 나의 능력이 존재하리라고 예지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나의 능력이 내게 더 확실하게 엄존하게 된다¹⁰⁾.

하느님의 예지와 자유의지가 상충되지 않는 것은 비유하면 인간이 과거사를 기억한 다고 해서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설명한다. 하느님의 예지는 인간의 기억처럼 예지하고 있는 내용의 원인이 아니다.

하느님이 미래의 사건들을 예지하고 있지만 그 예지가 미래의 사건들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아니란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예지가 인간이 자유의지로 악을 행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이 인간의 범죄를 분명히 예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범죄토록 강요한 것은 아니란 것이다. 죄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결정인 것이다.

「자유지론」의 논리적 구조에 의하면 하느님은 선하며 그의 모든 피조물도 선하고, 따라서 자유의지와 그 대상인 사물들도 모두 선하다. 그런데, 악은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인간의 이성이 정욕에 굴하여 사물을 사랑하게 되는 데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죄악의 책임은 인간 자신이며, 사물이나 자유의지를 부여한 하느님이 아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죄악의 책임을 사회나 환경으로 돌릴 수 없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III. 인간의 구원과 하느님의 은총

「자유지론」의 완성 후 2년이 지난 397년부터 401년까지 5년에 걸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불후의 명작 「고백록」을 집필했다. 「자유지론」에서는 하느님은 선하시고 자유의지 또한 선한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써 악이 생긴다는 것이 주요 논지였다. 즉, 악의 기원과 책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에 「고백록」에서는 죄악으로부터의 구원과 하느님의 은총에 중심이 주어졌다. 「고백록」의 전반부(1-7권)는 인간의 죄성을 자신의 체험의 회고 형태로 다루고, 후반부(8-13권)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회심’사건을 중심으로 죄악으로부터 구원받는 원리를 논하고 있다.

「고백록」은 집필 계획에 따라 구성한 작품이 아니고, 5년의 기간 동안 여러 상황에서 썼던 글을 모아 “인간 영혼에 안식을 주시는 하느님의 영광”이란 주제로 재구성한 책이다¹¹⁾. 이로 인해 「고백록」의 구조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 본 논문과 같은 맥락에서 「고백

10) Ibid., III. III. 8. 289쪽

11) Brian Stock, Augustine the Reader: Meditation, Self-Knowledge, and the Ethics of Interpretation(Cambridg,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301-2.

록」의 구조를 파악한 대표적인 학자는 수하키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구조 분석을 제시했다¹²⁾.

- 1권 「고백록」의 도입부
- 2권 I부의 서론(배나무 아래 도둑질)
- 3-7권 I부 인간의 죄악
- 8권 II부 의 서론(무화과 나무 아래 회심)
- 9-13권 II부 하느님의 은총

이 구조에서 배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각각 ‘인간의 죄악’ 과 ‘하느님의 은총과 구원’을 상징한다. 이러한 구조분석은 「고백록」이 한 개인 아우구스티누스의 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즉 인류의 죄성에 관한 것, 그리고 이 책의 참 주인공은 하느님이란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은 오직 하느님의 은총에 있다는 점을 명료히 함으로써 신학적 해석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고백록」은 아담의 타락으로 죄악에 물든 인간이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해 하느님의 은총을 향하도록 자신의 체험적 이야기를 빌어 선교하고 교육하는 ‘신앙교육’서라 할 수 있다.

「고백록」의 중심어는 인간의 죄성, 회심, 하느님의 은총과 구원이라 하겠다. 특히 ‘회심’이 핵심이라 하겠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학, 인식론 측면에서도 매우 독창적이고 탁월한 고찰을 하고 있다. 죄악에 물든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하느님을 향한 선한 마음으로 돌아섬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그는 이성과 인식에 관한 신적조명(divine illumination)설로 답한다.

그의 조명설에 의하면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내면에는 참다운 ‘빛’이 있어 이를 통하여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 ‘빛’은 우리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다. 「고백록」의 “영원한 진리의 빛에 나가다”에서 조명설의 빛이 잘 기술되어 있다

나는 들어가서 미약한 내 영혼의 눈으로나마 내 영혼의 눈보다 높이 있는, 그리고 내 정신보다 높이 있는, 불변의 빛을 보았으니 이 빛은 아무 육체나 볼 수 있는, 예사로운 빛이 아니었고, 같은 종류의 빛 가운데 엄청나게 더 크고 엄청나게 더 밝아, 우주공간 전체를 비출 만큼 조명의 범위가 무척 광대한 그러한 것도 아니었나이다. 이 빛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고, 이 모든 것과는 종류가 전혀 다른 빛이었나이다. 이 빛이 내 정신보다 높이 있다 함은, 물 위에 기름이 뜨고 땅보다 하늘이 높다 함과는 성질이 다른 것이었나이다. 이 빛이 나보다 높은 것은 이 빛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이요, 내가 이 빛보다 낮은 것은 내가 이 빛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무릇 진리를 아는 자는 이 빛을 알며, 무릇 이 빛을 아는 자는 영원을 아나이다. 무릇 참된 사랑은 이 빛을 아나이다.¹³⁾

12) Marjorie Suchocki, “The Symbolic Structure of Augustine's Confessions”, i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Vol. 50.No.3(September 1982), 366

13) A. Augustinus, Confessionum., VII.X.16. 김광채 옮김, 『고백록』,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190-191쪽.

아무리 밝고 우주 전체를 비출 수 있다 해도 물리적인 빛은 조명설에서 말하는 빛이 아니다. 이 ‘빛’은 영원, 진리, 참된 사랑, 창조와 같은 것으로 즉 하느님의 빛이요 하느님 자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조명설에 따르면 앎은 인간의 내면에서 하느님의 비춤 즉 신적조명에 의해 실현된다. 이는 플라톤의 학습 회상설과 유사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학습이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란 점에서 유사한데, 플라톤의 회상설은 ‘지식은 이미 학습자의 내면에 선험적으로 있는 것인데 망각되어 있던 것을 다시 회상하는 것’으로 영혼선재설에 바탕한 것이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조명설은 인간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다시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조명에 의하여 영원불변의 진리를 지금 이 시각에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고백록¹⁴⁾의 주제로 돌아가서, 인간이 죄성에 물든 것은 이성이 이 ‘빛’을 받지 못하고 어둠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 의지로’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선을 보지 못하므로 순간적이고 변하는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악행의 원인이다. ‘회심’이란 어둠에 하느님의 빛 즉 신적조명이 일어나 영원한 하느님으로 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의지적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IV. 신앙교육의 관점에서 본 자유의지와 신적조명

1. 현대문명과 마니교의 세계관

마니교(Manichaean Religion)는 선과 악이 이 세상에 공존하며, 즉 빛과 어둠이 태초이전부터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이원론의 교리체계를 가졌다. 마니교 신학은 빛과 어둠의 이원론을 주장하는 조로아스터교와 바빌론으로부터 유래한 영지 주의적 구원론을 갖고 있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에 빠지게 된 이유를 털리히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제시한다. 첫째,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진리는 실존적 관심이었는데, 마니교는 논리적 분석의 문제가 아닌 실천적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둘째, 마니교 또한 일종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마니교의 교리는 선악의 투쟁 사이에 놓여져 있는데, 이 선악의 투쟁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역사 해석의 가능성을 주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¹⁴⁾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의 기원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마니교(이단)의 소굴에 빠지게 된 요인이었다고 「자유 의지론」에서 말하고 있다.

다음부터 인용하는 「고백록」은 김광채 옮김을 사용함.

14) Paul Tillich,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NewYork: Simon and Schuster, 1968, p.106

아: 내가 아직 청년이었을 적에 나를 몹시도 괴롭혔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 이단자들에게 까지 나를 내맡기고 내팽개쳤던 바로 그 문제를 그대는 제기하고 있다.....우리가 믿기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존재하며, 하느님은 죄악의 장본인이 아니시다. 그러나(우리)지성을 동요케 하는 바가 있으니, 만약 하느님이 창조하신 영혼들로부터 죄악이 나오고 영혼들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일진대 (비록 약간의 간격이 있기는 하지만)어째서 죄악들이 하느님께로 소급되지 않느냐는(의문이)바로 그것이다¹⁵⁾.

하느님이 영혼을 창조하였고, 영혼들이 죄악을 저지르므로, 결국 악의 기원은 하느님이라고 생각되므로 교회에 가지 않고 마니교 들어갔다는 의미이다. 선악의 이원론적 철학에 이끌리어 마니교에 입교하여 9년 동안이나 지내면서 점차 마니교의 허위성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악마의 덫에 빠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의 늪을 헤쳐 나온 후 악의 실체성과 유물론적 세계관에 대한 고백을 보면 당시 그의 오류가 명료하게 밝혀진다.

하오나 당신이 인간의 육체와 같은 형상을 가지셨다는, 또 당신에게 우리 인간의 몸에서 볼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마니교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되었나이다. 하오나 나는 나의 하느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큰 물체 덩어리로밖에 생각할 줄 몰랐으니, 이는 무릇 물체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내가 했음 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오류의 가장 크고도 거의 유일한 원인이었나이다. 그리하여 나는 악도 그와 같은 실체로서 추하고 보기 흉한 물체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고, 그리하여 밀도가 높으면 마니교에서 말하는 땅 덩어리가 되고, 밀도가 낮고 세미하면 공기 덩어리가 된다고 믿었는데...¹⁶⁾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에 빠져 있던 시기에 가졌던 이원론적 세계관과 유물론적 사유는 근대과학 이후 현대과학의 물질문명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현대인의 세계관에 스며들고 있다. 근대과학은 선악 이원론 대신에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으로, 그리고 정신세계를 부정하는 유물론으로 변모되었을 뿐 기본 틀은 대동소이하다.

근대과학의 철학적 기초는 데카르트의 물질과 정신의 분리라는 이원론에 바탕 한다. 그의 ‘기계적 철학(mechanical philosophy)’의 근본 요소는 물질(matter)과 운동(motion) 이다. 그는 이 두 가지가 자연세계에서 근본이 되고 절대 확실한 실재라고 보았다. 기계적 철학과 종교를 접합시키기 위하여 데카르트는 기계적 철학의 근본 요소를 신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신이 물질을 창조하고 그것에 운동을 부여했으며, 운동의 법칙도 정해 주

15) De libero arbitrio, I. II. 4, 77쪽.

16) Confessionum, V. 10. 19-20, 137쪽

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자연의 법칙을 연구함으로써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근대과학이 정립되고 기술이 발달하여 물질문명이 대중화됨에 따라 신은 점점 소외되고 기계로서의 자연만 홀로 남게 되었다. 더구나 생명과학이 발전되면서 생명의 신비마저 점점 없어지고 물질과학적 측면만 더 밝혀지자 생명 및 인간 기계론이 과학적 관점의 주류가 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자연, 생명, 인간 모두를 유물론적 관점에서 물질만이 실재하고, 마음, 의지, 정신은 뇌신경의 복잡한 현상에서 나오는 것이란 극단적 세계관이 정통 과학계의 기본 태도이다.

이러한 유물적 과학관이 학교교육에서 문화적 권위로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찬란한 현대 문명이 이러한 세계관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비록 종교적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데카르트적 이원론을 가지게 되고, 많은 무신론자는 유물론에 빠지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현대인은 자의와는 관계없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에 심취했던 것과 유사한 정신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교회가 있는 가운데 「마니교」가 큰 세력으로 유포되었듯이 오늘날에도 종교들이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교」가 가장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청소년과 현대인을 유혹하고 있다고 하겠다.

신앙과 영성을 무시하고, 오직 가시적 물질세계만을 인정하는 사회에서는 교육도 지식위주 특히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위주의 교육에 치중되어 인격양성 등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이 위축되게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입시와 겹쳐 이러한 폐단이 더욱 심화되어 왔다. 인격 교육의 파행은 다시 물질, 경제, 경쟁을 더욱 강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전의 상황과 현대사회의 유사성을 보아, 그의 회심과 구원으로부터 현대적 신앙교육의 지침을 찾아볼 수 있겠다.

2. 죄악의 주체

현대사회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처했던 시대상황과 유사한 격변기이며, 가치관의 붕괴와 혼란, 종교의 다양화, 유물론적 세계관의 풍미, 물질과 경제의 지나친 강조 등으로 인간의 존엄과 정신과 영성의 중요성이 경시되고, 인간의 불안과 죄악으로의 유혹이 어느 시기보다도 더 강하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죄악의 원천, 주체와 책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해답을 모색한 것이 「자유지론」이었다. 그는 이원론과 유물론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악의 원천이 신(하느님)이라는 마니교의 사상을 배격하고, 인간의 의지를 재조명하고 그 중요성을 천명하였다. 현대 사회는 변형되긴 했으나 마니교와 유사하게 이원론과 유물론적 세계관이 풍미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저지르는 죄악의 원천을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빈곤, 교육의 결여 등으로 보는 점이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와 크게 다르다. 마니교나 현대사회가 다 함께 죄악의 원천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타자(신 또는 사회)로 돌림으로써 도덕적 행위의 주체와 윤

리 책임 소재를 잘못 찾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이지론」이 현대인에게도 그 의의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윤리 도덕적 정체성에 관련된다. 나는 무엇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물음의 궁극적 해답은 나의 의지란 것이 「자유이지론」의 기초이다. 나의 의지가 바로 나 자신이며, 의지와 의지의 주체는 분리 가능한 것이 아니란 점을 밝히고 있다. 이 점은 신의 의지에 대해서도 유사하다. 즉 하느님의 의지는 곧 하느님 자신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은 자유의지 때문이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신의 의로운 심판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나는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 했으나,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했나이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이해력을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려고 애를 썼으나 다시 빠져 들어갔으니, 거듭거듭 애를 쓸 때마다 번번이 다시 빠져 들어갔나이다.

하온데 나를 당신의 빛으로 끌어올려 주는 것이 한 가지 있었으니, 그것은 내가 의지를 가졌다는 것이 내가 살아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게는 확실하다는 사실이었나이다. 그리 하여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 의지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나는 너무나 확실히 알게 되었으며, 바로 여기에 내 죄악의 원인이 있음도 점차 깨닫게 되었나이다.¹⁷⁾

인간의 모든 동기의 발원, 행위의 근원, 그리고 인간을 행위의 주체로 만드는 근원이 바로 의지 또는 자유의지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찬란한 물질적 문명을 선용의 대상으로 보아야 되느냐 아니면 죄악의 유혹으로 보아야 되느냐는 개인의 의지적 선택이며, 자유의지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적 관점이 된다. 악은 인간의 외부 사물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있다. 예를 들면 무절제한 욕망이 그것이다. 인간의 의지가 욕망에 끌려가는 것은 높은 가치와 영원한 대상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악은 가치의 전도로 인하여 참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을 모르고, 지혜와 진리로부터 분리되고 타락되어 열등한 사물들을 사랑하는 것이다¹⁸⁾. 현대인이 처한 죄악의 상황을 이보다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이지론」은 현대적 의의가 있다.

3. 신적조명과 죄악으로부터의 구원

현대인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빠르게 변하는 사회와 자연환경 속에서 시대의 변화에 대한 적응과 경쟁의 스트레스 속에서 불안과 번민 그리고 물질적 유혹에 의한 악의 덫에 빠지기 쉬운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유이지론」은 죄악의

17) Confessionum, VII, III, 5, 177쪽

18) 김성진, 전계논문, 205쪽

주체와 윤리적 책임이 개인의 의지에 있다고 천명 하고 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과 악, 행복과 불행, 구원과 파멸의 사이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며, 외적 상황이나 물질적 대상들 자체는 주체가 아닌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지혜가 부족하여 스스로 최고의 선과 영원불멸한 가치와 진리를 추구하기에는 너무나 나약하고 부패해있다. 현세욕에 끌리어 지고하신 하느님을 관조하는데서 멀어져 저급하고 일시적이며 변질되는 사물들에 끌린다. 자신에 열려있는 선택을 결국은 죄를 짓는데 사용하게 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이러한 타락된 상황에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은 오직 하느님의 은총밖에 없다고 하였다. 「고백록」은 바로 하느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관해 기록한 마음의 의지 이야기이다¹⁹⁾. 그는 인격체의 중심이 이성이 아닌 의지이며, 따라서 타락과 구원이라는 근원적 문제의 열쇄도 의지에 있다고 보았다. 이 의지를 중시하는 주의설(主意說)은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의 플라톤을 위시한 고대 그리스 철학사조인 주지설(主知說)에 대립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이성적 사유보다 의지와 신앙이 더 중심적이라고 보았다. 그의 독특한 인식론은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참된 삶의 세계에 도달 하려면 이성을 안내할 수 있는 선한의지, 즉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삶은 이성의 사유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지의 개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진리의 인식에는 믿음이 이성보다 먼저이며, 이 둘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²⁰⁾.

삶의 현상에서 의지의 이성에 대한 우선성은 구원론에서 그의 유명한 ‘신적조명설’을 낳는다. 인간이 ‘자유의지’에 의하여 악을 선택하는 것은 이성적 지식의 결핍이 아니라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인 하느님을 향한 마음을 밝혀주는 신적조명이 결여된 때문이란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가변적인 사물을 향한 욕정에 사로잡혀 세속적인 사랑으로 움직인다. 이 ‘자유의지’에 의한 잘못된 악의 선택은 하느님의 은총인 ‘신적조명’에 의해서 높고 영원한 것을 향하도록 마음의 방향을 밝혀주어 인간의 구체적 행위를 선으로 이끈다. 그러므로 「고백록」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기술하는 ‘회심’은 하느님을 등진 어둠에 빛을 비추어 다시 하느님을 향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 ‘회심’은 이성적 지식의 빛이 아니라 하느님이 내려 주신 은총의 빛이란 것이다. 어둠에 잠겨 있던 영혼이 ‘신적조명’을 받아 하느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속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선을 행하게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성적 지식만으로는 영생 구원이라는 하느님 신앙의 핵심 목표가 달성될 수 없다고 보았다. 언젠가 사라질 세상의 사물들로부터 영원불변의 진리요 생명이신 하느님에게로 마음을 바꾸는 회심이 그리스도 신앙의 삶에서 핵심이라고 보았고, 이것은 하느님의 은총인 ‘신적조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사랑이

19) 유지황, 「마음의 신학: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분석적 이해」, 『한국교회사학회지』, 제13집, 한국교회사학회, 2003, 252-253쪽.

20) 주영흠, 『아우구스티누스 교육사상』, 학지사, 2007, 181-182쪽.

곧 선이며, 이것은 인간 각자의 내면에 비추어지는 하느님의 빛이란 신적 조명설은 신앙 교육적 측면에서도 아우구스티누스의 가장 독특한 인식론적 교육관이다. 교육학적으로 이성적 지식을 외부에서 교사가 주입하거나 경험에 의해서 체험함으로써 획득한다는 주지주의적 교육관과 대치된다.

4. 현대사회에서 아우구스티누스적 신앙교육

현대사회와 아우구스티누스가 처했던 고대사회는 천 육백년이 넘는 격차에도 불구하고 세계관과 교육관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세계관은 앞서 논한 바와 같은 이원론과 유물적 사상에서 상통하는 바가 있다. 교육관은 이성적 논리와 지식을 주로 하는 주지주의적 관점에서 상통한다.

플라톤을 시점으로 하는 그리스 주지주의의 영향은 신 플라톤 주의자들의 책을 통하여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진리추구는 이성만의 작용으로서, 인간의 의지나 감정 또는 가치관에서 독립된 진리자체만의 추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지식은 가치중립적 존재로 보았다. 인식체계도 인간 의식에 직접적으로 주어졌다고 보지 않고, 초월적인 이데아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주지주의적 관점은 지식 행위의 무목적성, 비인격적 접촉의 교육 가능성 등 인간교육의 파행을 불러올 수 있다. 지식의 재화로서의 가치가 강화되고, 인격적 가치가 사라지는 폐해를 낳게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적인 학습은 오히려 교만한 자기만족을 얻을 뿐이라고 하였다.

나는 별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지혜로운 자처럼 행세하기 시작했으니, 「나의 무지름」 슬퍼하기는커녕 지식을 뽐내고 있었나이다. 하오니 겸손의 바탕 위에 세워질 사랑이 과연 「내게」 있었겠나이까? 혹은 「플라톤 학파」의 그 책들이 나에게 그러한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었겠나이까?..... 교만한 자기만족과 겸손한 신앙고백의 차이, 가야 할 목적지는 알면서도 그리로 가는 길을 모르는 자들과, 복된 나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 줄 뿐 아니라 거기서 가서 살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시는 분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알아차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었나이다²¹⁾.

현대사회에서는 주지주의적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지식을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성취에서 높이 평가할 뿐 사랑, 행복과 마음의 평화로 이끄는 겸손한 신앙고백 등 선한의지를 배양하는 교육은 아우구스티누스 시절보다도 훨씬 더 취약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20세기에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겪고 21세기에 들어서 정보 지식 산업으로 고도화 되면서 지식의 상품성과 재화적 가치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교육과 사회

21) Confessionum, VII, 20, 26, 201-202쪽

제도도 이런 추세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간의 의지와 사랑, 마음의 평화, 행복의 추구 등은 개인의 사적인 관심사 정도로 밀려나는 형국이다. 객관적 지식과 지성만이 강조되는 이런 불균형은 인간의 온전함을 잃게 하고, 사회는 황량해지고, 인간적 유대는 끊어지고, 각 개인은 소외된 인간으로 경제 주체로만 여겨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인간 삶의 본래의 목적인 행복 또는 영원한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인도하는 교육을 펴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앙체험, 회심전의 고뇌, 하느님의 은총과 구원은 현대적 신앙교육의 뛰어난 지침을 제시한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유의지론」과 「고백록」을 통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의설(主意說)에 바탕한 인식론과 신적조명(divina illumination) 학습론이 현대인의 신앙교육에서 갖는 의의를 고찰하였다.

「자유의지론」은 악의 원천에 관한 논구로서 하느님은 선만을 창조했으며,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선하며, 인간과 인간의 의지도 선함을 보이고, 악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비롯했음을 논증하고 있다. 자유의지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인간이 이를 오용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오용의 원인은 인간이 영원불변한 진리 즉 하느님을 향 하도록 이성인 인식하지 못 한데 있다. 악이란 다름 아닌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사물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백록」에서는 인간이 나약하여 악에서 벗어나 영속적인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고통 속에 마음의 번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 오직 하느님의 은총에 의하여 신적조명을 받음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을 중심으로 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삶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 즉 영원한 마음의 평화이며 이는 오직 하느님을 사랑하게 됨으로써만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다.

현대인은 아우구스티누스와는 다른 상황이지만 즉 과학적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 이지만, 그 핵심적 정신상황은 오히려 유사한 바가 있다. 즉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이 선악 이원론과 대응되며, 마니교의 유물론적 사상과 현대과학의 유물론적 생명관이 유사하다. 따라서 현대인들도 회심전의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악의 유혹을 받아 삶의 목적이 전도되고 있다. 모든 악의 원천을 자신의 자유의지에 두지 않고 바깥 사물이나 환경에 둠으로써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근본적 치유를 회피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자유의지론」이 현대인에게 다시 강조될 필요와 지식교육에 우선하여 믿음을 강조하는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제공한다.

한편 상품적 지식 교육에 치우친 현실적 교육상황으로 삶의 목적이 전도되어 경제적 재화의 생산과 획득, 물질적 향유를 목표로 하는 타락과 번민의 삶을 구원하는 길은 영원한

마음의 평화와 선한 의지 즉 하느님의 진리 사랑에 있음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백록」이 현대인에게 주는 신앙 교육적 의의 이다.

「자유지의론」의 책임 논리와 「고백록」이 주는 회심과 진정한 행복의 체험이 현대인을 위한 신앙교육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재은, 「성 어거스틴의 교육론」, 『신학과 세계』 33, 감리교신학대학교, 1996.
- 김성진, 「현대의 윤리적 상황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지의론」 『중세철학』, 제8호, 한국 중세철학연구소 편, 분도출판사, 2002.
- 이규철, 『어둠에서 빛으로』, 쿤란출판사, 2001.
- 유지황, 「마음의신학: 성 어거스틴 고백록의 분석적 이해」 『한국교회사학회지』, 제13집, 한국교회사학회, 2003
- 이석우, 「자유지의와 역사」, 『건대사학』 10, 건국대학교 사학회, 2003.
- 이석우, 『아우구스티누스』, 서울: 민음사, 1995.
- 이석우, 「어거스틴의 교육사상」 『서양고대사연구』 3,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1995
- 주영흠, 『아우구스티누스 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2007.
- 정정숙, 「어거스틴의 교육사상연구」, 『신학지남』 283, 신학지남사, 2005 여름.
- 정현숙,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육사상과 신앙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24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 정희숙, 「St. Augustine의 영성교육론」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Augustinus A., *De libero Arbitrio*. 성염 역주, 『자유지의론』, 분도출판사, 1998.
- Augustinus A., *Confessionum*, 최민순 옮김, 『고백록』, 성바오로출판사, 1993.
- Augustinus A., *Confessionum*, 김광채 옮김, 『고백록』,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 Augustinus A., *De Civitate Dei*, 조호연 김종흠 옮김, 『신국론』, 현대지성사, 2002.
- Augustinus A., *De Trinitate*, 김종흠 옮김, 『삼위일체론』,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7.
- Babcock W.S., *The Ethics of St. Augustine*, 문시영 옮김,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학』, 서광사, 1998.
- Howie G.,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in St. Augustine*,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969.
- Howie G., *St. Augustine: On Education*, South Bend: Gateway Editions, Ltd., 1969.
- Garry Wills, *Saint Augustine*, 안인희 옮김, 『성 아우구스티누스』, 파주: 도서출판 푸른숲, 2005.
- Stock, Brian *Augustine the Reader: Meditation, Self-Knowledge, and the Ethics of Interpret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Suchocki, Marjorie, "The Symbolic Structure of Augustine's Confessions", i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Vol. 50. No. 3(September 1982): 365-379.

Tillich Paul,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NewYork: Simon and Schuster, 1968.

원고접수: 2008년 1월 31일 1차심사: 2월 4일 게재승인일: 2월 16일

연구자 소개: 정현숙

① 전공: 교육학/ 소속: 수원대학교 교양교직과 교수

② 관심영역: 성인들의 영성교육 사상

③ 주요논저: 「대승기신론의 아라야식과 음의 무의식 비교고찰」,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과 상담」,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에서 ‘종교’원리의 원천」

④ E-mail: hschung@suwon.ac.kr

Abstract

Faith-education and Augustine's 「On Free Will」 and 「The Confessions」

Chung, Hyun-Sook

Suwon University

Augustine's two books 「On Free Will」 and 「The Confessions」 were reviewed to obtain guides for faith-education in the present society. In the book 「On Free Will」 he argued that the origin of evil is not God the creator, or created beings like matters, human, and will but the misuse of free will. Therefore, the moral and ethical responsibility of evil lies in the human will. In the present society a similar argument can be suggested that the responsibility of sin and evil lies in sinner not in the society or environment. In 「The Confessions」 the 'conversion' that Augustine experienced to be liberated from evil was made possible by the 'divine illumination' gives an instructional message: The contemporary education heavily based upon the teaching-learning of knowledge can not help people to overcome temptation of evil, and psychological anxiety or to develop their personal maturity. Rather the faith in God should precede the reason for the maturity of emotion and will. Objective knowledge teaching alone without consideration of value and purpose can not guarantee the happiness and good conduct of human. What Augustine thoughts and experienced was that the eternal happiness and peace in heart was obtainable by properly using free will to love eternal, immutable truth, and the God instead of the corruptible and momentary things. The themes in 「On free Will」 and 「The Confessions」 provides good guides for the faith-education in the contemporary situation.

Key words : On Free Will, The Confession, evil, conversion, divine illumination, faith-education.